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6. 10. 7.(수) 12:00
(지 면) 2026. 10. 8.(목) 조간

기록적 폭염에도 여름철 수상 안전사고 사망자 역대 최소

- 물놀이 사망자 14명으로 2008년 통계 관리 이후 최소... 전체 수상 안전사고 사망자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13% 감소

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올해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 기간(6.1.~9.13.) 중 물놀이 사고 사망자가 14명으로, 2008년 통계 관리를 시작한 이후 가장 적었다고 밝혔다.

※ '08~'25년 사망자 수는 총 715명, 평균 사망자 수는 39.7명→ '26년 14명(64% 감소)

물놀이를 포함한 전체 수상 안전사고 사망자는 82명으로, 최근 3년(2023~2025년) 같은 기간 평균 94명보다 12명(약 13%) 줄었다. 지난해 같은 기간 86명과 비교해도 4명(약 5%) 감소했다.

※ 올해 사망자 수는 잠정 수치로, 10월 중 수상 안전사고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
이 같은 성과는 이례적인 폭염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분석된다.

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일 최고기온 39℃ 이상인 날이 42회 관측됐고, 평균기온은 25.4℃로 역대 3위, 열대야 일수는 18.2일로 역대 2위를 기록하는 등 극한 기상 여건이 이어졌다.

이에 정부는 폭염에 대비해 수상 안전관리 기간을 늘리고, 안전관리 요원 증원과 사고 다발 지역 점검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에 역량을 집중했다.

먼저, 수상 안전관리 대책 기간을 기존 92일(6.1.~8.31.)에서 105일(6.1.~9.13.)로 확대하고, 성수기 특별대책 기간도 34일(7.15.~8.17.)에서 73일(6.12.~8.23.)로 대폭 늘려 운영했다.

아울러,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지원하고, 하천·계곡과 지정 해수욕장 등에는 전년보다 404명(7.6%) 증가한 5,746명의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했다. 또한,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근무 실태와 현장 교육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였다.

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점검도 강화했다. 행안부 장·차관과 실·국장 등 간부급 공무원이 전국 67개소를 직접 점검하고, 지역 책임관을 통해 262개소를 표본 점검했다.

특히, 사고가 자주 발생한 25개 지역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, 해당 지역 51개소를 사전 점검하는 등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했다.

관계 부처 협업도 강화하였다. 행안부 주관으로 총 14차례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대책과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, 사고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함께 점검했다.

또한,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, 기자단 정책 설명회, 방송 인터뷰와 교통·생활밀접시설 등을 통해 물놀이뿐 아니라 낚시, 다슬기 채취, 해루질 등 다양한 수상 활동별 안전 수칙도 집중 홍보했다.

올해 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, 낚시·해루질·다슬기 등 수산자원 포획·채취가 전체 사망자의 38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, 물놀이가 17%로 나타났다. 장소별로는 연안해역(41%)과 하천·계곡(35%)에서 사고가 집중됐다. 특히, 구명조끼 미착용, 음주 후 입수 등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.

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. 안전관리 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순찰과 계도를 강화하고,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 후 입수 금지 등 안전 수칙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.

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“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이른 더위, 늦더위가 이어지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대책 기간을 확대하

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”라며,

“앞으로도 연안해역과 비지정 해변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고, 현장 순찰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사회재난실 재난안전점검과	책임자	과 장	박범수 (044-205-4240)
		담당자	사무관	박희성 (044-205-4251)

